

**독** 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가람선원의 대령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비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가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스님

## 길을 묻는 이에게

제 670호 **현대불교**  
2008년 3월 12일(음력 2월 5일) 수요일 / 불기 2552년  
**법공양 페이지**

**25**

# 아주 적중하게 알맞게 자고 알맞게 깨어라!

(지난 호에 이어서)

**질문자2(여):** 포항지원에서 왔습니다. 어떠한 인연으로 이렇게 제가 복을 받게 됐는지 스님 가까이에서 인사드릴 수 있는 영광을 갖게 돼서 감사합니다. 제가 스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건요, 요즘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여쭙고 싶거든요. 얼마 전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영국에서는 양을 복제를 했다 그러고요. 또 미국에서는 원숭이를 복제를 했다고 지금 보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인간까지도 복제가 가능하다고 말씀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인간을 복제하고 싶다면 어떤 사람을 복제하고 싶냐고 양 케이트 조사까지 했더니만 세종대왕과 이순신과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을 복제하고 싶다고까지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제가 예를 들어서 저를 만약에 복제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외양이나 모습은 저를 닮았을 줄 모르지만 그 마음 또한 똑같은지는요.

그리고 그 마음 또한 일체 만물만생과 연결되는 한마음, 참마음이 될 수 있는지요. 그리고 또한 그 마음 또한 저와 인연이 이어져서 그렇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스님:** 그렇게 복제를 한다면, 여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습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각각각색으로 잘나잘나 변하고 천차만별로 쓰이는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그 사람들의 차이에 따라서 어떻게 될 테죠. 그렇다고 해서 아주 안되는 건 아니지만 그 몇 가지의 조목을 넣어서 컴퓨터에 입력하듯이 넣어서 하면 되죠.

**질문자2(여):** 그리고 또 제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스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너무 미약해서 마음공부를 한다고 사실 말하기조차 부끄럽지만요. 예전에 공부하기 전과 지금 공부할 때 달라진 제 모습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공부하기 전에는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상태로 인해가지고 제 모습은 보지 않고 원망하는 마음이 많이 생겨가지고 상태를 보고 원망하며 제 마음도 아팠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이 차츰차츰 작아지면서 이제는 어떤 마음이 생기나 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물 한 모금이 먹고 싶어서 컵에 한 잔을 따랐다가도 저도 모르게 '주인공, 감사해!' 하는 마음과 일체 만물만생에게 감사해! 하는 마음이 생겼거든요. 잘 해가고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또 스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스님께서는 한 마음 전력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전력을 뻗어 놓고 있는데 그걸 끌어다 쓰라고 말씀하시는데 저



그림 · 최주현

희들이 좀 끌어 쓰고 싶거든요. 어떻게 끌어 써야 잘 쓰는 건지 또한 어떻게 꽃아야 불이 들어오는 건지도 저는 아직 미약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한마음 전력이야 코드를 잘 꽃아 가지고 저희들 마음공부 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어서 한마음 한 말씀 주셨으면 합니다.

**스님:**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마음이 아니라, 다 그렇게 육신 부리고 그러는 마음 말고 말이에요, 움푹 거러지 않는 마음이 바로 중심이 되거든요. 심봉이 돼요. 그 마음과 이렇게 동일하게 됨으로써 거기에다 코드를 꽃거든요. 음, 그런데 그것은 자연적으로, 아까도 뭐 복제한다고 그랬지요?

그랬는데 그것도 기계화물 입력을 해서 넣는 거지 스스로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마음이 나와서 이게 수시로 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만 모두 못한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그 육망, 의욕, 그것도 좋은데,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으면 그대로 '왔다'야, 그냥 아주, 하하하. 시체탈모 말입니다. 그냥 모든 게 다 감사하다면 그냥 통통뽕뽕 무너져요. 그 유전성이라든가 영계성이라든가 업보성, 인연, 인과성, 세균성이 그냥 뽕뽕뽕 무

너져요. 무너지게 되면 환하게 문 아닌 문이 보여요. 그랬을 때에 그 문으로 툭씩 들어서면 들어서는 사이 없이 들어서게 돼요. 그러면 뭐,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그 주인이 자기에 그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저 감사하면 모두가 녹아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공부할 당시에 빨치산으로 불들렸던 말이에요. 불들려서 끌려갔는데 (손가락을 가리키시며) 여기다가 막대기를 넣고 고문을 하고 그러는데 그때 빨치산 그런 사람들, 무척 불들리고 그런 때야, 그런데 그렇게 고문을 하는데도 하나도 그 사람이 원망이 되지 않고 내가 감사하게 생각해 드는 거야. 왜냐하면 '아하, 내 주인공이, 알른 쉽게 말해서 내 주인공이 나를 다스리라고 저 사람을 시켜서 이렇게 했으니 저 사람을 오히려 수고로 하게끔 만들었구나.' 하는 거야. 수고로 하게끔 만든 것 아니냐고. 나 때문에 말이예요. 아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래서 기뻐하고 이제 그 방 문 이렇게 설주 있는 산골 문 있잖아, 그 방에다 넣고 바깥으로 문을 잠갔는데, 그 사복을 하고 있던 형사들이 모두 그렇게 자더

라고. 그래 거기다 넣었는데 얼마 있다가 '이제는 뭐 이만하면 됐으니까 가자.' 내 생각에 '가자' 그러고선 문 한쪽을 이렇게 드니까 기다랗게 설주 깔았던 그 한쪽이 속 빠지면서 그냥 이렇게 열리는 거야. 하하하.

그래서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책상에 여섯 명이 양쪽에 이렇게 있으면서 그냥 옆드려서 자는 거야, 건빵을 먹다가요. (대중 웃음) 건빵하고 물하고 모두 먹다가 놓고 그냥 자는 거야, 너무 피곤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건빵을 주섬주섬 또 주워서 하하, (대중 웃음) 주머니에 넣고 그러고서는 슬슬 물 한 모금 또 거기 있기에 마시고 그러고선 '잘 있거라, 나는 간다.' 하하하. (대중 웃음) 아, 이런 나왔더니 말입니다.

그 죄 없이 상처 입은 건 빨리 낫습니다. 그러니깐 죄 없이 상처를 입은 그 상처는, 지금까지도 조급씩 흘려 있지만 그냥 금방 나아보려고요. 아프질 않아요. 이 마음이 아픈 것이 문제지 이 살덩어리 아픈 건 금방 나아오. 마음이 좋으면 그냥 금방 나아오. 그래서 여러분이 병들지 말고 사시라 이겁니다.

가는 날까지 병들지 않아야 사람이 살맛이 나지 병들게 되면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항상 하죠. 그러니 모두 내 집 지키는데, 내 집 지키기를 아주 자기네 보물단지 넣어놓고 지금 집에서 살듯이, 그 집을 지키듯이 자기 몸뚱이 집도 지켜야 합니다. 주인이 없으면 아무나 들어와서 자고 가니깐요. 하하, 그러고요?

**질문자2(여):**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스님:** 아니, 말 다 했어요? 하하, 그래요. 아주 그만큼 감사한 마음이 일체 생겼다는 것이 벌써, 당신 그 과거 부(父)와 현재 자(子)가 만남의 길이 될 수 있어요.

**질문자3(남):** 성남에서 왔습니다. 제가 스님께 질문을 할 그럴 자격이 있는지조차도 의심스러운데 한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하루하루 넘기기 힘들 정도로 어떤 육체적 고통들이 있는데...

**스님:** 다리 아픈데 조금 다가와서 해요. 편히 앉아서 다리 이렇게 편히 앉아서 해요. 움직요.

**질문자3(남):** 하루하루 견디기 힘들 정도로 육체적 고통들이 있는데 단순히 이런 차원에서 끝난다면 제가 이렇게 스님께 질문을 드릴 이유도 없지만 이 육체적 고통 뒤에 보이지 않는 마음들이 있어서 때때로 제 마음을 돌아다 보면 그런 육체적 고통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지곤 하고 뻥치 모를 어떤 마음의 회들이 느껴집니다. 저 자신에게도 해당되겠지만 모든 인간들에게 어떤 육체적 고통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바라볼 때 마음공부 하는 것하고 육체적 질병이 있는 것들의 관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기를 첫 번째 청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저하고 같이 온 분이 제가 질문을 하러 나가니까 부탁을 해서가지고 제가 대신 여쭙았는데요. 수련 중에 수마를 이끌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알려주시고요, 또 짐을 좀 적게 잘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스님:** 음, 그거야 뭐 어렵지 않지요. 그런데 집이 가 어떠한 고통이든지 막론하고 어떠한 고통의 용도든지 그것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하나만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 하나 지나고 나면 또 오고 또 오고 이런 게 있어요. 사는 게 그렇고 진리가 그러하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한테 딱 쳐를 때마다 자기 주인공인, 즉 말하자면 자기 몸뚱이 찌꺼고 자기 주인공은 뿌리와 같은 거야,

26면으로 계속

## 간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등담과 비갈만한 지리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지리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미술)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허리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깨끗한 참 다슬기를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시킵니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미술에 넣고 전통방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 때까지 48시간을 달입니다. 여기에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주문하시면 (생선) 달여 드립니다.** 참 다슬기 농축액은 주문(생선) 달여들이며 주문시 기간은 3일~4일 걸리오니 참고하시고 주문해 주세요!

**상담 (055)963-9583**  
**문의 (055)355-5626**  
산마을 토종(민속농원)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071004-중-1784호 (광고)

### 퇴행성 류마티스 디스크 동신방 한의원에서 - 한방(韓方)요법으로 다스려!

◆ 허리, 목 디스크 한방요법 치료

**[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은 어떻게 다른가? ]**

- 퇴행성 관절염 통증
-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
- 목, 허리 디스크 통증

**동신방 한의원에서는 한의학 적 한방요법으로 치료한다.**

동신방 한의원에서는 허리, 목 부분까지 연결된 척추 뼈 사이에 있는 섬유 태와 그 사이에 들어있는 수액을 디스크(추 간판)이라고 하는 것이 바깥으로 튀어나오거나 파괴되어 생긴 병이라고 하며, 동신방 한의원은 디스크 즉, 추간판 탈출증은 허리나 목과같이 많이 움직이거나 충격을 가해졌을 때 추간판이 정상적인 위치를 벗어나 신경을 압박하여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을 얘기하고 동신방 한의원에서는 디스크로 인한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저희 한의원의 노후우가 담긴 처방을 사용하여 한약재를 깨끗한 물을 이용하여 한의학 방법으로 만들어 지는 약물 치료 요법으로 디스크로 고생하는 환자들을 치료한다고 동신방 한의원은 말한다.

**동신방한의원 문의 080-598-9832**

부처님의 말씀을.. 스님의 법문을.. 황홀한 아름다운 풍경을 가슴에 담고 추억의 마음에 남기면서 잊지 못할 한순간 한순간을 작은 공간에 가득히 담아 소중한 담아 영원히 남기세요. 풍경 영상과 함께..... 풍경 영상 기획 사업부

**사찰홍보, 사찰행사, 자서전(다큐멘터리) 단체 사찰성지순례, 스님 강의, 법문**

• **역력:** - 한국비디오 작가 연합회 정회원  
- 한국디지털비디오영상 편집실 실장  
- 방송 이력데미  
- VITK공대  
- KDV 경남본부장

**풍경영상기획 0551867-0844, 746-2778**  
\* 신문구독 신청받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 경남남부지사 055)867-0776

### 사단법인 대한호국 불교 소림선종 입종 안 내

달마조사께서 주석 하였던 중국 송산소림사의 달마조사 33대제자 석연선방장 큰 스님으로부터 대한호국불교 소림선종 총무원장 덕산 석연화 큰 스님과 10여명의 소림선종의 스님들이 달마조사 34대제자로 중국 송산소림사 큰 법당에서 소림 1600년사에 외국스님들에게는 최초로 금년 1월 23일 수계법회가 여법히 거행되었음을 중국언론에서 특종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를 기념하는 행사로 중국 송산소림사 석연선방장 일행 23명의 소림스님들이 서울 인사동 소재 중국 송산소림사 한국문화원본부 현판식 참석 및 소림무술 공연 행사를 (2월 18일~2월 21일) 서울 신촌 봉원사와 원주 소림선종 분할 율화사, 부산 해동공사에서 거행하였고 그리고 본 법단의 숙원 사업인 소림승가대학과 소림중앙선원 소림무술학교 건립발사를 시행하여 본 법단의 면모를 여법히 갖추어 줍니다. 이에 때를 같이하여 뜻을 함께하실 대덕근스님과 종도 및 행자님을 모시고져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중국소림사에서 달마조사의 제자후 수 - 도계현 수어(입종비:15만원)**  
◆ **입종시: 사찰등록증, 주지 임명장, 승려증부여**  
◆ **입종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2통, 승려증사본 2통, 이력서 1통, 여권사본 5매**

**소림문화원 개원에 따른 수강생 모집 (개강일 4월 1일)**

- 명상수행: 새벽반, 오후반(무료)
- 서화(동양화): 주 3회 2시간 청곡 이현동선생(3개월 10만원)
- 서예: 주 3회 2시간 석천 김기섭 선생
- 소림무술: 소림무술스님: 석연체스님, 석연탁스님(소림사 석연선방장님제자), 스님 무료(입종스님에 한함)
- 대상: 스님, 일반인, 학생

**중국 송산 소림사 한국문화원**  
소림선종 총무원: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170번지 통일빌딩 6층 전화 02)720-6363 / 팩스 02)720-6340 / 담방 010-6438-3561 인터넷 동영상: (아후) 연합불교방송